

심청 '삶' 주목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

도립국악단 춤·극 '심청' 11~12일 남도소리올림터 소리·사물·기악부 등 단원 37명 현대춤 선배 눈길

고전 '심청'이 현대적 관점의 춤극으로 다시 태어난다.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유장영)은 오는 11~12일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에서 2019년 정기 공연 춤·극 '심청'을 공연한다.

도립국악단은 그동안 소리를 중심으로 한 공연을 선보여왔다. 그러나 소리 이전에 몸짓이 있었다는 생각으로 '심청'을 춤 중심의 작품으로 완성시켰다.

유장영 예술감독은 "‘시간을 건너는 강’이라는 작품을 준비할 때, 무용이 주는 느낌과 감동, 열망이 섰었다"며 "소리부와 사물부, 기악부 등 37명의 단원이 같은 동작으로 한 무대에서 춤을 추는 점이 이번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대는 스토리텔링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현대의 춤을 삽입했다. 실제 무용을 전공하지 않은 단원들은 안무를 익히기 위해 수없이 반복되는 연습을 견디면서도 처음 시도해보는 무대에 큰 재미를 느끼며 연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립국악단은 최근 몇 년간 시대창극을 해왔다. 이는 공연을 통해 현 시대를 말할 수 있어야 이 시대의 창극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고전과는 다소 멀어졌다든 평을 받았다.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호'를 품은 '심청'을 이



전남도립국악단의 춤·극 '심청' 연습장면.

공양미 삼백 석에 인당수에 몸을 던진 소녀 심청이 될 때, 2장 '회상'은 심봉사이자 심작가의 내면 혹은 또 다른 생의 공간을 표현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죽음을 맞은 심청의 지난날을 그린다. 3장 '작가의 서재'의 공간 배경은 현대로 전환된다. 심작가는 자신의 서재에서 죽은 딸과 아내를 위해 글을 쓰며 피폐해진 마음은 보이지 않는 눈보다 더 심하다. 심작가를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뺨덕은 전통적 해학과 희화화의 주제이기 보단 심작가를 존경하고 시와 수필을 사랑하는, 교양과 미덕을 갖춘 순수한 여인으로 분한다. 4장 '꿈속이라도'는 심작가의 꿈을 통해 죽은 딸

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준다. 딸의 형상과 조우한 심작가는 딸에게 용서를 구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얼어붙은 심청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심청의 춤과 심작가의 노랫소리가 듀엣으로 이어진다.

5장 '네 눈은 나의 눈'은 심청이 가진 메시지를 가장 축약하고 있는 대목이다. 사랑의 방식을 깨달은 심작가는 원고지와 펜을 쥘 겨 앞을 바라보고, 휘청이지도 헤매지도 않는 모습으로 당당히 걸어 나간다.

티켓 가격 5,000원-1만 원.

/이보람 기자

고려인 광주진료소 후원 '희망나눔 자선콘서트'

15일 ACC 예술극장2

고려인 광주진료소 후원 '희망나눔 자선콘서트'가 오는 15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의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려인에 진료봉사를 하고 있는 고려인 광주진료소를 후원하는 콘서트로, 고려인 마을 어린이 합창단과 고려인 밴드, 포크&락 밴드 프롤로그와 민중가수 정용주, 주하주, 테너 장홍식 소프라노 이승희 등이 출연해 포크와 민중가요, 클래식 등 다양한 음악들이 선보인다.

이날 공연은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의 러시아곡 '춘가찬가'와 '홀로아리랑'으로 문을 연다.



'고려인밴드'

이어 포크&록밴드 프롤로그가 '담쟁이' '손에 손잡고' '빅토리' '다시 합시다' 로 흥을 돋우고 민중가수 정용주와 주하주가 '지리산' '부용산' '세월이 갈수록'을, 테너 장홍식과 소프라노 이승희는 '그리운 금강산' '넬라판타지', 오페레타 '웃음의 나라' 중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오슬레미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로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고려인을 사랑하는 의료인 모임과 고려인 청년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고려인 밴드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박병순 세종병원장과 정찬영 새미래병원장, 고려인 청년 김아니파·이디아나·박엘리자벳으로 구성된 고려인 밴드는 러시아 가요 '난 항상 당신과 함께 합시다'와 러시아민요 '백만송이 장미',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를 선보인다.

대미는 포크 듀오 해바라기가 '내 마음의 보석 상자' '행복을 주는 사람' '사랑으로' '이젠 사랑할 수 있어요' 등을 들려주며 파스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고려인을 사랑하는 의료인 모임'이 지난해 3월 개소한 고려인 광주진료소는 고려인들의 무료 진료를 하고 있다.

/이보람 기자

소반 통해 돌이켜보는 전통 밥상문화

롯데갤러리, 가을기획전 '차림;기다림' 김영민·한우석 초대 전통소반 재해석

롯데갤러리는 가을을 맞아 우리 전통 소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획전을 마련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차림;기다림' 전으로 전통 밥상문화의 묘미와 함께 우리만의 생활미학을 엿볼 수 있는 '소반(小盤)'을 선보이는 자리다.

소반은 한국 좌식문화의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예품 중 하나다. 따로 음식을 먹는 공간을 두었던 서양과는 달리 조리한 음식을 방으로 옮겨와 식사를 했던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소반은 이동이 용이하고 실생활에 자주 쓰

일 수 있는 작고 낮은 크기로 제작됐다.

더불어 장유유서의 가족윤리, 내외간의 구별, 안방과 사랑방이 부속과 떨어져 있는 전통 가옥의 구조상 1인 1반이라는 특성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멀리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그 오래된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소반은 다른 전통가구와는 다르게 계층과 지위를 막론한 생활필수품으로 우리 전통 식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김영민, 한우석 작가는 각각 전통소반과 현대복공예를 다루고 있다.

김영민은 나주반의 전수조교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이수자로 한국 3대 소반장인 부친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과 영국에서 가구디자인을 전공한 한우석



김영민 작 '나주반'

은 물, 바람, 산수 등 자연의 요소요소를 절제된 미감으로 해석, 동양의 정신성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선보여 왔다.

이번 기획전에는 우리나라 3대 소반 중 하나인 나주반과 함께 소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공동체 문화가 어느새 버거운 관계맺음으로 느껴지는 건조한 시대에 소반을 통해 우리 밥상



한우석 작 'wave'

문화를 돌이켜보는 것도 의미 있을 듯하다. 한편, 관객참여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소반 만들기'와 '육각연필꽃이 만들기'를 진행한다.

나만의 소반 만들기는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선착순 희망자 10명에 한해 무료로 진행되며, 육각연필꽃이 만들기는 전시 기간 중 주말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0개 한정으로 진행된다.

/이연수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고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 동구	중앙 223-2378 010-3635-1195	북구	운암 525-3761 010-6886-3761
총장 233-4123 010-7755-8824	양산 574-3745 010-2646-3205	오치 261-9461 010-3629-0146	목포(갑) 010-3272-2765
학운 225-0651 010-3640-2454	오치 261-9461 010-3629-0146	문흥 261-9462 010-7601-4480	목포(을) 010-3635-6777
■ 서구	광천 374-2126 010-9602-2565	일곡 573-3200 010-9273-0105	목포(병) 010-9359-1648
쌍촌 372-6659 010-6636-2775	화정 381-2156 010-4235-0902	두암 264-7074 010-2684-6091	여수지사 010-8648-1236
화정 381-2156 010-4235-0902	상무 372-7625 010-5013-3889	중흥 433-1503 010-4601-2080	순천지사 010-2547-7890
상무 372-7625 010-5013-3889	풍암 681-3179 010-6634-5084	북부 222-2524 010-2656-4543	나주(갑) 010-6401-9370
풍암 681-3179 010-6634-5084	■ 남구	■ 광산구	나주(을) 010-3713-7458
봉선 653-1920 010-9474-0212	봉선 653-1920 010-9474-0212	첨단 971-7374 010-3613-2312	광양지사 010-2630-1628
진월 653-6900 010-5662-7449	진월 653-6900 010-5662-7449	신가 952-4864 010-3648-2549	
월산 010-8245-1625	월산 010-8245-1625	월곡 952-1687 010-3612-1687	
남부 651-1833 010-2943-8016	남부 651-1833 010-2943-8016	우산 951-9954 010-5018-0024	
송하 010-8620-1925	송하 010-8620-1925	수완 959-1414 010-3101-2526	
		송정 941-7070 010-3976-0123	
		혁신 010-4623-9622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광양지사 010-3601-1102	담양지사 010-4154-8277	영암지사 010-4624-8409
목포(갑) 010-3272-2765	곡성지사 010-6764-6100	무안지사 010-3621-8989
목포(을) 010-3635-6777	구례지사 010-5431-4006	함평지사 010-3773-2522
목포(병) 010-9359-1648	고흥지사 010-9151-2828	영광지사 010-8666-2882
여수지사 010-8648-1236	보성지사 010-5259-6441	장성지사 010-3666-1300
순천지사 010-2547-7890	화순지사 010-3666-5888	완도지사 010-5619-7020
나주(갑) 010-6401-9370	장흥지사 010-3613-6114	진도지사 010-3624-4777
나주(을) 010-3713-7458	강진지사 010-6646-1241	신안지사 010-4627-1472
광양지사 010-2630-1628	해남지사 010-8181-2627	

M 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720-1080-82
 이메일 편집국 : jndn@chol.com 관리국 : jsm7139@nate.com 월간국 : jnreviews@hanmail.net
 광고국 : jnmi1000@hanmail.net 마라톤대회 : 0518run@hanmail.net 글짓기대회 : peace20090818@hanmail.net